

## Verdict

**Winning Hypothesis:** 시장의 약세 내러티브가 옳은 이유: 실질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가 금의 무이자 자산 매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중국 중앙은행의 매입 중단과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결합된 '구조적 매도' 국면이 도래했기 때문임. T10Y2Y 스프레드가 양전세상을 유지하고 ICSA가 고용 안정을 시사하는 'Risk-on Drag' 레짐 하에서는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보다 기회비용 상승 압력이 우세하여, 금값이 4,300 달러 부근에서 추가 하락하여 2000 원선 붕괴가 확정된 약세장이 지속될 것임.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과 실질금리 상승이 금의 무이자 자산 매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이란 종전 협상 기대감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급감했다고 판단함. 또한 중국 중앙은행의 매입 중단과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패닉셀이 결합되어 금값이 온스당 4,300 달러 부근에서 9% 이상 급락하며 약세장이 확정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하지만 시장 내러티브가 제시한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 메커니즘이 T10Y2Y 스프레드 0.39% 양수 유지와 US10Y 3개월 기준 6.33% 상승 데이터에 의해 명확하게 검증되고 있음. ICSA가 22.9만 명으로 경기 침체 임계치인 30만 건을 하회하여, 경기 침체 우려가 국채 매수(금리 하락)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배적인 'Risk-on Drag' 레짐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함. GOLD 3M Return -12.83% 급락과 DXY 0.23% 소폭 상승은 금 하락이 달러 강세보다는 실질금리 상승과 공급 측면(중국 매입 중단 등)이 주동력임을 강력히 뒷받침하며, 가설 B가 주장하는 '과매도'나 '헤지 기능 유지'는 현재 가격 급락세와 거시 지표의 방향성을 설명하기에 부족함.

**Action:** GOLD 비중 축소 및 US10Y 비중 확대

**Invalidation:** T10Y2Y 스프레드가 2주 연속 0% 미만(인버전)으로 전환될 경우

**Risk Factors:** (1) 매크로 리스크: 연준의 급작스러운 금리 인하 신호 또는 인플레이션 데이터(CPI/PCE)의 급격한 둔화로 실질금리 상승 논리가 무력화될 가능성, (2) 기술적/포지셔닝 리스크: GOLD의 3개월 -12.83% 급락으로 인한 과매도 구간 도달 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Short Squeeze)으로 인한 가격 급등 리스크, (3) 이벤트 리스크: 지정학적 긴장 고조(중동 등)로 인한 안전자산 수요의 갑작스러운 재점화로 금 가격의 비기초적 상승 발생 가능성

## Macro Picture

**Regime:** risk\_on\_drag

**Key Themes:**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종전 협상)로 인한 안전자산 프리미엄 소멸, 중앙은행 매입 둔화 및 개인 투자자 패닉셀

**Dominant Narrative:**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과 실질금리 상승이 금의 무이자 자산 매력을 훼손하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기대감이 안전자산 수요를 급격히 위축시켰음. 중국 중앙은행의 매입 중단과 개인 투자자들의 2000억 원 규모 패닉셀이 결합되어 금값이 1g당 20만원선 붕괴 및 온스당 4,300달러 부근에서 9% 이상 급락하는 약세장이 확정된 것으로 인식됨.

**Reality:** T10Y2Y 스프레드가 0.39%로 양전세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UMCSENT(49.8)의 극심한 불확실성과 ICSA(22.9만 건)의 안정적 고용 지표는 연준이 금리를 쉽게 인하할 수 없는 '고금리 장기화' 환경을 시사함. 이는 실질금리를 높여 금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하며, 2026년 6월 기준 금값이 최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황은 인플레이션 헤지보다는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가치 재평가 과정임을 보여줌.

## Hypotheses

## A (Market Right)

시장의 약세 내러티브가 옳은 이유: 실질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가 금의 무이자 자산 매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중국 중앙은행의 매입 중단과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결합된 '구조적 매도' 국면이 도래했기 때문임. T10Y2Y 스프레드가 양전세상을 유지하고 ICSA가 고용 안정을 시사하는 'Risk-on Drag' 레짐 하에서는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보다 기회비용 상승 압력이 우세하여, 금값이 4,300 달러 부근에서 추가 하락하여 2000 원선 붕괴가 확정된 약세장이 지속될 것임.

시장 내러티브는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으로 실질금리가 상승하고, 미국-이란 종전 협상 기대감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급감했다고 판단함. 또한 중국 중앙은행의 매입 중단과 2000억 원 규모 개인 투자자의 패닉셀이 결합되어 공급 과잉과 수요 위축이 동시에 발생하여 가격 붕괴를 주도하고 있음. T10Y2Y

스프레드 양전세상과 ICSA의 안정적 고용 지표는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켜 국채 매수 (금리 하락)를 유발하지 못하므로, 금의 하방 압력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것임.

## B (Market Wrong)

매크로 현실이 옳고 시장이 과매도된 이유: 'Risk-on Drag' 레짐 하에서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와 불확실성 (UMCSENT)이 금 가격의 하단을 지지하고 있으며, 중국 매입 중단은 단기적 조정에 불과하여 장기적인 탈달러화 흐름이 차단되지 않았기 때문임. 실질금리 상승이 금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T10Y2Y 스프레드 양전세상과 고용 지표가 경기 침체 신호를 주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배적인 환경에서 금은 단순한 무이자 자산이 아닌 '통화 가치 하락 헤지 수단'으로 기능하여 9% 이상 급락한 가격은 과매도 구간일 것임.

시장 내러티브는 금의 약세장을 확정된 것으로 인식하나, 매크로 데이터는 UMCSENT의 극심한 불확실성과 ICSA의 안정적 고용 지표가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을 시사하여 실질금리 하방 압력이 지속됨을 보여줌. 이는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중국 중앙은행의 매입 중단은 단기적인 가격 조정 기제일 뿐 구조적인 탈달러화 흐름을 차단하지는 못함. 따라서 금값은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가치 재평가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기대와 불확실성에 대한 헤지 수요가 하단을 지지하여 추가 급락은 제한될 것임.

**Key Question: T10Y2Y 스프레드가 2 주 연속 0.0% 이하로 반전되어 경기 침체 신호 (인버전)가 명확해질 경우, 금의 약세장이 '실질금리 상승'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 우려'에 의한 국채 매수 (금리 하락)로 전환되어 금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가?**

## Tensions

시장 내러티브는 실질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인해 금의 안전자산 프리미엄이 소멸하여 약세장이 확정된 것으로 인식하나, 매크로 데이터는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지속되더라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가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았음을 시사하는 모순을 보임.

0.70

Narrative: 실질금리 상승과 종전 협상 기대감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어 금값이 9% 이상 급락하며 약세장이 확정됨.

Reality: T10Y2Y 스프레드 양전세상과 UMCSENT 불확실성, ICSA 고용 지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을 시사하여 실질금리 하방 압력이 지속되나,

GOLD US10Y DXY

시장 내러티브는 중국 중앙은행의 매입 중단과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패닉셀이 결합되어 금값 붕괴를 주도하고 있으나, 이는 단기적인 가격 조정 기제일 뿐 구조적인 탈달러화 흐름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님.

0.60

Narrative: 중국 중앙은행 매입 중단과 개인 투자자들의 2000억 원 규모 패닉셀이 결합되어 금값이 1g당 20만원선 붕괴 및 온스당 4,300달러 부근에서

Reality: 단기적인 매도 압력이 강하나, 장기적인 탈달러화 흐름과 중앙은행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여 완전한 매도세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

GOLD USDKRW SPX

시장 내러티브는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이 금 가격에 결정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여 골드 랠리가 끝났다고 단정하나, 실제 데이터는 고금리 환경 하에서도 금이 인플레이션 기대와 불확실성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줌.

0.50

Narrative: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과 실질금리 상승이 금의 무이자 자산 매력을 훼손하여 골드 랠리가 끝났고 약세장이 확정됨.

Reality: 고금리 장기화 환경이 지속되더라도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와 불확실성 (UMCSENT)이 금 가격의 하단을 지지할 수 있음.

GOLD US10Y VIX

## Alternatives

### US10Y - 미국 10년 국채

상승 (금리 하락 시 가격 상승 또는 실질수익률 확보)

실질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공존하는 'Risk-on Drag' 레짐에서, 금의 무이자 자산 매력이 훼손된 만큼 실질수익률이 보장되는 국채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 자산입니다. ICSA가 경기 침체 임계치 하회에도 불구하고 국채 매수 (금리 하락)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은 오히려 고금리 장기화 기조 하에서 국채의 가격 안정성과 실질수익률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USD - 미국 달러 (DXY)

상승 또는 강제 유지

금 하락의 주동력이 달러 강세보다는 실질금리 상승과 공급 측면 (중국 매입 중단)이었으나,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지속되는 한 달러의 상대적 가치 우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금리 상승은 달러 자산의 매력을 높여, 금 대비 달러의 안전자산 기능과 유동성 선호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 TIPS - 물가연동국채 (TIPS)

상승 (실질금리 안정화 및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 재발현 시)

시장 내러티브가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 소멸'을 주장하지만, 매크로 데이터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명목금리 상승 (US10Y) 에 따른 실질금리 상승 압력을 헤지하면서도, 잔존하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방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TIPS 는 금의 약세장에서 실질 수익률 보장을 위한 최적의 대안 자산입니다.

## Eval Scores

PASS

Overall	<div style="width: 80%;"></div>	4.0
Tension	<div style="width: 100%;"></div>	4
Hypothesis	<div style="width: 100%;"></div>	5
Evidence	<div style="width: 100%;"></div>	4
Verdict Logic	<div style="width: 75%;"></div>	3

**Feedback:** ## 종합 평가 이 파이프라인은 시장 내러티브와 매크로 데이터 간의 모순을 잘 포착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체계적인 가설 설정과 데이터 수집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Risk-on Drag'라는 레짐을 정의하고 이를 검증하려는 시도는 매우 훌륭합니다. 그러나 \*\*결론 도출 과정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수치들의 출처와 적시성 (Timeliness) 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여, 논리적 엄밀성 (Verdict Logic) 에서 감점이 발생했습니다. ## 상세 평가 및 개선 방안 ### 1. tension\_validity: 4/5 - \*\*강점\*\* : '안전자산 프리미엄 소멸 (내러티브)' vs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 잔존 (현실)'이라는 긴장 포인트가 금 시장 분석에 매우 핵심적이고 실재합니다. 중국 중앙은행 매입 중단과 패닉셀의 결합이라는 구체적인 트리거도 잘 설정되었습니다. - \*\*약점 및 감점 사유\*\* : "9% 이상 급락", "2000 원선 붕괴", "4,300 달러 부근"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현재 시점 (2024 년 기준) 에서 금 가격이 온스당 4,300 달러나 2000 원선 (약 1g 당 20 만 원은 현재 시세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수치일 수 있음, 문맥상 혼란) 에 있다는 사실은 \*\*현실과 동떨어진 가상의 시나리오\*\*로 읽힙니다. 실제 금 가격은 온스당 2,300~2,400 달러 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적 비현실성\*\*이 긴장의 '실재성'을 훼손합니다. - \*\*개선 방안\*\* : 분석 대상 시점을 명확히 하거나 (예: "가상 시나리오" 또는 "특정 과거 기간"), 실제 현재 시장 가격과 일치하는 수치를 사용하여 긴장의 현실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2. hypothesis\_quality: 5/5 - \*\*강점\*\* : 가설 A(시장 내러티브 옳음) 와 가설 B(시장 과매도/현실 옳음) 가 명확하게 대립하며, 각각의 논리 (Logic) 가 일관되게 전개됩니다. 특히 'T10Y2Y 인버전'을 핵심 분기점 (Key Question) 으로 설정하여 반증 가능성 (Falsifiability) 을 높은 점이 탁월합니다. - \*\*개선 방안\*\* : 현재 수준에서 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3. evidence\_targeting: 4/5 - \*\*강점\*\* : FRED 데이터 (T10Y2Y, UMCSENT, ICESA), 가격 데이터 (GOLD, US10Y, DXY),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과거 사례 검색 (RAG) 까지 가설 검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소스를 매우 포괄적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Risk-on Drag' 레짐을 확인하기 위한 SPX 상관관계 분석은 매우 적절합니다. - \*\*약점 및 감점 사유\*\* : `data\_shopping\_list` 에 포함된 데이터 요청이 매우 구체적이지만, `verdict` 부분에서 인용된 수치 (예: "US10Y 3 개월 기준 6.33% 상승", "ICSA 22.9 만 명", "GOLD 3M Return -12.83%") 가 \*\*실제 수집된 데이터 (Evidence) 와 어떻게 매핑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수치들이 파이프라인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외부 지식으로 주입된 것이라면, 데이터 쇼피리스트의 실행 결과와 결론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해집니다. - \*\*개선 방안\*\* : `verdict` 의 `rationale` 에서 인용된 구체적인 수치 (6.33%, 22.9 만 명 등) 가 `data\_shopping\_list` 의 어떤 항목 (예: `price\_history` 의 GOLD 3M Return) 에서 도출되었는지 명시적으로 연결하거나, 해당 수치가 실제 데이터 소스에서 추출된 것임을 증명하는 로그를 포함해야 합니다. ### 4. verdict\_logic: 3/5 - \*\*강점\*\* : 결론 (가설 A 승) 으로 가는 논리 흐름은 일관되어 보입니다. 실질금리 상승과 고용 지표가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금의 하방 압력을 지지하는 논리는 타당합니다. - \*\*약점 및 감점 사유 (STRICT 적용)\*\* : 1. \*\*수치적 근거의 불명확성\*\* : "US10Y 3 개월 기준 6.33% 상승"이라는 수치는 매우 구체적이지만, 현재 금리 환경 (10 년물 국채 금리가 4~5% 대) 에서 3 개월 만에 6.33% 포인트나 상승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도로 비현실적인 수치\*\*입니다. (만약 6.33% \*상승률\*을 의미 한다면, 이는 금리가 4% 에서 4.25% 로 오른 것을 의미할 수 있으나, 문맥상 '포인트 상승'으로 읽혀 오류로 간주됨). 이는 \*\*감점 기준 (변동률이나 수치를 계산 근거 없이 감각적으로 제시)\*\* 에 해당할 소지가 큼니다. 2. \*\*과장된 표현\*\* : "붕괴가 확정된", "9% 이상 급락" 등의 표현이 실제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서술인지, 아니면 감정적 과장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금 가격이 4,300 달러라는 전제 자체가 현재 시장과 괴리되어 있어, 이 전제하에 도출된 결론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 \*\*개선 방안\*\* : - 인용된 모든 수치 (금리 상승폭, 고용 지표 수치, 수익률 등) 가 실제 데이터 소스에서 추출된 것임을 명시하고, 그 계산 과정을 간략히 서술해야 합니다. - 현재 시장 가격과 괴리된 수치 (4,300 달러 등) 를 사용했다면, 이를 "가정된 시나리오"임을 명시하거나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수치로 수정해야 합니다. - "붕괴", "확정"과 같은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적 유의성 (예: 2 표준편차 이탈, 역사적 분기점 등) 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재시도 가이드 1. \*\*데이터 정합성 확인\*\* : 파이프라인이 처리하는 데이터의 시점 (Date) 과 현재 시장 가격 (GOLD ~\$2,350, US10Y ~4.2%) 을 비교하여, 분석 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진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2. \*\*수치 출처 명시\*\* : `verdict` 섹션에서 인용된 구체적인 숫자 (6.33%, 22.9 만 명 등) 가 `evidence\_summary` 나 `data\_shopping\_list` 의 결과물임을 명확히 연결하십시오. 3. \*\*객관적 서술\*\* : 감정적 표현 (붕괴, 폭락) 을 줄이고, "하락을 9%", "역사적 저점 도달" 등 정량적 표현으로 대체하십시오.

시장의 뷰: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과 실질금리 상승이 금의 무이자 자산 매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 - 이란 종전 협상 기대감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급감했다고 판단함. 또한 중국 중앙은행의 매입 중단과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패닉셀이 결합되어 금값이 온스당 4,300 달러 부근에서 9% 이상 급락하며 약세장이 확정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결론: 시장의 약세 내러티브가 옳은 이유: 실질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가 금의 무이자 자산 매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중국 중앙은행의 매입 중단과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결합된 '구조적 매도' 국면이 도래했기 때문임. T10Y2Y 스프레드가 양전세상을 유지하고 ICESA가 고용 안정을 시사하는 'Risk-on Drag' 레짐 하에서는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보다 기회비용 상승 압력이 우세하며, 금값이 4,300 달러 부근에서 추가 하락하여 2000 원선 붕괴가 확정된 약세장이 지속될 것임. [HIGH]**

하지만 시장 내러티브가 제시한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 메커니즘이 T10Y2Y 스프레드 0.39% 양수 유지와 US10Y 3개월 기준 6.33% 상승 데이터에 의해 명확하게 검증되고 있음. ICESA가 22.9만 명으로 경기 침체 임계치인 30만 건을 하회하며, 경기 침체 우려가 국제 매수 (금리 하락)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배적인 'Risk-on Drag' 레짐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함. GOLD 3M Return -12.83% 급락과 DXY 0.23% 소폭 상승은 금 하락이 달러 강세보다는 실질금리 상승과 공급 측면 (중국 매입 중단 등)이 주동력을 강력히 뒷받침하며, 가설 B가 주장하는 '과매도'나 '헤지 가능 유지'는 현재 가격 급락세와 거시 지표의 방향성을 설명하기에 부족함.

→ GOLD 비중 축소 및 US10Y 비중 확대

무효화: T10Y2Y 스프레드가 2주 연속 0% 미만 (인버전)으로 전환될 경우

대안: US10Y: 실질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공존하는 'Risk-on Drag' 레 | USD: 금 하락의 주동력이 달러 강세보다는 실질금리 상승과 공급 측면 (중국 매 | TIPS: 시장 내러티브가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 소멸'을 주장하지만, 매크로 데이터

